

광주~ 백수해안도로 질주...전기차 대중화 선봉 나선다

기아 첫 전동화 세단 EV4 시승

기아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브랜드 첫 전동화 세단 'EV4'를 통해 기술력을 뽐내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대비 약세로 평가됐던 세단 라인 이미지 변화를 노린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확장된 선택지를 제공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3일 기아가 국내 시장에 네번째로 선보이는 전용 전기차 모델 EV4 시승식이 진행됐다. 구간은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영광 법성포 일원으로 총 110km에 달하는 거리다.

출발 전 살펴본 EV3 외관은 첫 세단인 만큼 이전 SUV와 다르게 날렵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전면부는 패밀리룩 '타이거 페이스'가 적용돼 최근 기아 차량과 비슷했다.

측·후면 라인이 인상적이었다. 낮게 떨어지는 후드 앞단에서부터 트렁크 끝단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실루엣과 휠 아치를 감싸는 블랙 클레딩이 전동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세단의 모습을 구현했다.

보통 세단의 경우 머리 부분이 뒤보다 훨씬 긴데 EV4는 앞·뒤 길이 대칭을 맞춰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기존 세단에서 볼 수 없었던 루프 스포일러가 차체 양 끝에 배치되는 등 그간 기아가 강조했던 '혁신적인 실루엣'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EV4 내장

기아 제공

기아가 국내 시장에 네번째로 선보이는 전용 전기차 모델 EV4 시승식이 최근 진행됐다. EV4 외장. 기아 제공

날렵한 외관·중형급 실내 크기 눈길
공기저항 0.23 '정숙·경제함' 뽐내
1회 충전시 533km 주행 가능 '안정'

외관을 보고 작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오산,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뽐냈다.

휠베이스 길이 2,820mm를 확보해 한 등급 위인 K5 2,850mm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1열이 2열보다 헤드룸이 넉넉했고 가까운 전방 시야 확보가 세단답지 않게 원활했다. 2열 레그룸도 넉넉해 성인 남성 4명이 함께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12.3인치 클러스터·5인치 공조·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세계의 화면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필요

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줬다. 미디어 전원·음량 및 공조 온도·풍량 기능은 물리 버튼으로 적용돼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했다.

도로에 나와서 첫 느낌은 '조용하고 경제하다'로 표현 가능했다.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은 물론 기아 차량 중 가장 우수한 공력성능인 공기저항계수 0.23을 뽐내는 듯 시원한 주행이 가능했다.

'제로백 7.7초'에 걸맞은 속도 복원력은 한적한 도로에서 높은 쾌감을 선사했다.

전기차 뒷좌석 고정벨 '멀미'도 i-페달 기능

에 다소 개선된 느낌이다.

회생 제동 강도를 주행 상황에 맞춰 자동 조정하며, 앞차와 거리까지 고려해 브레이크 페달 없이 정차할 수 있다.

규정 속도에 맞춰 자동 감속하는 기능도 지원해 운전 부담도 크게 줄었다.

시승을 마치고 난 뒤 차량의 충전량은 81% 주행가능거리는 430km였다. 출발 직전 96%·520km에서 에어컨을 가동했고 각종 주행보조 기능도 사용했는데도 kWh당 6km가 넘는 높은 전비를 보였다. 홍승현 기자

현대차, 2025 '아이오닉 5'·'코나 일렉트릭' 출시

현대자동차가 최근 '아이오닉 5'와 '코나 일렉트릭'의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했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각종 편의·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하면서도 가격 인상은 최소화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19일 현대차에 따르면 2025 아이오닉 5의 엔트리 트림인 E-밸류 플러스(VALUE+)에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는 동승석 전동 시트가,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2열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됐다.

또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 등 주차 편의를 위한 핵심 사양으로 구성된 '파킹 어시스트 Lite 패키지'를 신설하고 최상위 트림에서만 운영해 온 N Line을 중간 트림까지

확대 적용했다.

2025 코나 일렉트릭은 엔트리 트림인 'E-밸류 플러스(VALUE+)'에 △후측방 충돌 경고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의 안전 사양이 기본 적용됐다.

아울러 인조가죽 시트, 1열 열선·통풍시트 등이 포함된 '컴포트 초이스' 패키지를 E-VALUE+ 트림에 신설했다.

2025 아이오닉 5와 2025 코나 일렉트릭 구매 고객은 각각 200만원, 300만원 차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현대차 인증중고차에 기존 보유 차량(제조사 무관)을 매각하고 구매하면 20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홍승현 기자

기아 EV9 글로벌 호평...벤츠·볼보도 앞질렀다

독일 매체 1대1 비교평가

기아의 준대형 전동화 SUV 'EV9'이 유럽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들의 비교 평가에서 볼보,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경쟁 차량들에게 연승하며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19일 기아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는 최근 EV9(GT-line)과 볼보 EX90(트윈 모터 AWD)의 1대1 비교 평가를 진행하고 EV9를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전동화 3열 SUV"라고 평가했다.

매체 실측 결과 EV9는 EX90보다 모터 최고

출력이 낮았지만 더 빠른 가속 성능을 보였고, 실주행 전비는 20%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배터리 용량을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시간은 EX90이 32분 가량 걸린 것에 비해 EV9는 24분이 걸렸다.

EV9는 EX90보다 전장이 20mm 짧지만 축간 거리가 115mm 길어 3열과 적재 공간 활용성에서도 우세했다. 또한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2만 유로(약 3,124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대까지 고려한다면 "EV9이 EX90에 비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에서 앞선다"고 전했다.

다른 독일 매체 '아우토자이퉁'은 메르세데스 벤츠 EQS SUV(450 4매틱), 아우디 Q8 e-

트론(55 쿼트로) 등 경쟁사 전동화 대형 SUV와의 비교 평가에서 EV9(GT-line)을 1위로 선정했다.

EV9는 5개 평가 항목 가운데 △차체 △역동적 주행 성능 △친환경·경제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쟁 모델들을 압도했다. 특히 거주성, 트렁크 용량 및 적재중량, 안전사양, 품질 등을 평가하는 차체 부문 세부 항목 9개 중 8개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아우토자이퉁은 "독일 프리미엄 전기차와의 비교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할 자격이 충분하고 특히 가격 경쟁력과 우수한 성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중흥그룹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